

원자력에 대한 거짓 신화와 진실

1. 원자력은 무한하고 값이 싸다?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유한한 자원이며, 양질의 우라늄은 40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가장 위험하기에 가장 비싼' 에너지입니다.

2. 원자력은 잘만 관리하면 안전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핵발전 사고는 결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복잡한 거대기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 셈입니다. 분명한 것은 "원자력 없는 세상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3. 원자력은 청정하고 깨끗하다?

우라늄 채굴과 운반에서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생산과정에 화석연료가 사용되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더욱이 계속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심각한 위험요소입니다.

4. 충분한 전력 생산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려면, 원전 3,000기가 필요합니다. '생산' 보다 '낭비'가 큰 비효율적인 발전이 원전입니다. 국내 전력소비의 53.6%인 산업용 전기는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며, 이로 인해 대기업은 지난 5년 간 3조 8000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5.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

원자력의 뿌리는 20세기 최악의 발명품인 ‘핵폭탄’입니다. 이미 몇몇 국가는 원전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갈아 놓은 칼은 쓰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6.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발전소와 송전탑이 건설되는 곳곳은 ‘죽음의 땅’이 됩니다. 발전소와 송전탑이 들어설 때 마을 전체가 이주해야 하기에, 밀양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삶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 원자력은 유한하고 비쌉니다!
- 원전사고는 예측불가능합니다!
- 원자력 발전에도 석유가 필요하고 핵폐기물이 발생합니다!
- 전력생산,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 원자력 발전과 핵폭탄은 한 몸입니다!
- 대도시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2014 탈핵주일
 “핵없이 더불어 사는 세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